

28. 만리포 사랑, 백도라지에 공들인 자식 사랑

대부분 씨앗 수집은 목표 지향적이다. 이번에는 과연 무슨 씨앗을 만날지 기대만을 가지고 떠나지만, 분명히 목표가 있다. 한 마을, 때로는 여러 마을을 돌며 씨앗을 수집하고 이야기를 듣고 만나는 농부들의 삶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만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 목표에 따라 수집의 만족도가 좌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소개하려는 백도라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도라지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산채 식물이다. 산채가 식용으로 바뀐 경우이다 보니 육종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근래에 육종되어 보급되어 지금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육종 기간 불과 30여 년 만에 재배 면적을 지배한 작물이기도 하다.

작년 7,8월 경쯤으로 기억된다. 이때는 한여름이고 해서 씨앗 수집은 적절한 시기는 아니었다. 직업병일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우리를 멈추게 한 것은 단지 밭이 온통 하얗기 때문이었다. 저게 뭐지 하면서 되돌아 가보니 분명 도라지밭이었다. 신기한 것은 도라지밭이면 보라색 도라지가 함께 있어야 할 텐데, 그곳에는 보라색 도라지는 한 개도 보이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다. 심심산천에는 백도라지만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주인을 찾게 됐는데, 뜻밖에도 그분이 바로 이정 선생이었다. 이정 선생은 평소 친분이 있던 분이었다.

도대체 보라색 도라지는 어딜 갔는지 물었다. 혹시 민간요법하느냐고 물었다. 아니면 약으로 쓰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그의 답은 엉뚱했지만, 귀를 쫑긋하게 호기심으로 돌아왔다.

- 글쎄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백도라지는 아버지의 유품이나 마찬가지지요.
- 유품요?

그렇게 해서 백도라지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태안의 만리포까지 갈 줄은 몰랐다. 태안은 그의 가난한 고향이었다.

산 하나만 넘으면 희망이 넘치는 만리포 항. 내겐 익숙한 유행가 노래가 먼저다. ‘똑딱선 기적 소리 짧은 꿈을 신고서 갈매기 노래하는 만리포 ~ ’라는 노랫가락이 있는 마을, 모항. 그렇게 희망이 가까이 있었던 것인 걸 그들은 왜 몰랐을까? 산만 넘으면 짧은이들의 꿈이 펼칠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모를 일이다.

지금도 예전엔 매우 가난한 마을이었음을 짐작해 하는 여러 가지 기물들만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언뜻 생각하기엔 바다를 끼고 있으면 두메산골과는 거리가 멀 듯하지만, 이곳은 분명히 두메산골이었다. 바다는 가깝지만, 산을 넘지 않고는 길이 없었고, 그러나 사람들은 바다로 나갈 때 산을 넘어 나가지 않았다.

이 마을로 들어오려면 태안에서 만리포로 가는 길에서 갈라져 좁은 산길을 타고 아주 오랫동안 와야 했다. 그들은 그 길로 돌아서 바다로 나갔다. 들어오는 길은 모두 바다로 향해 있었지만, 한쪽은 바다로 나갔고 한쪽은 산을 마주해야 했다. 그 끝에 저수지가 있는 마을이다. 그런 곳에서 태어난 이정 선생.

그렇게 바다를 등지고 마을이 들어앉았으니 먹고 사는 것도 바다와는 상관없는 농업이 주였다. 그 산이 그들에겐 진산이었고, 세상과의 경계였다. 아주 오랫동안 뱃놀이 되지 않으려는 발버둥 끝에 모인 산이었고, 산은 심정적으로 그만큼 높아졌다. 그 바다를 등지고 있는 나지막한 산에 도라지가 지천으로 펴고 도라지보다 잔대가 더 많았다고 그는 기억했다. 돈을 빼고는 흔하면 천하고 없으면 귀한 법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산은 그만두고 밭에 조차 도라지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정 선생의 옛집을 가리키는 손끝에는 오래된 추억만이 무성했다. 이 마을에서는 이미 도라지가 귀한 작물이 돼 있었다.

- 저곳이 전부 백도라지 밭이었죠.

물론 아직도 백도라지가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고 왔다. 심심산천에 백도라지를 캐려 다니고, 추석 명절 음식에는 마루에 앉아 도라지 껍질을 벗기는 손이 늦은 시누이가 남아 있지 않은 이상 백도라지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아버지 이야기하기에는 이곳이 좋겠다 싶어 천리포 수목원 원장님도 만나볼 겸 이정 선생이 특별히 고향을 찾을 때를 맞춰 함께 왔다. 우리는 백도라지 밭이 보이는 그의 옛집 언저리 그루터기에 앉았다. 대부분 집 앞에 커다란 나무가 거추장스러워질 무렵부터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변화라 하여 속절없이 토종 씨앗도 함께 없어졌다.

- 아버님은 왜 그렇게 백도라지를 고집했대요?

- 그게 다 나 때문이었죠.

- 아, 네. 짐작은 했습니다만, 한 번 들려주시죠?

이정 선생에게는 형제가 둘이었다. 형은 항상 건강했지만, 이정 선생은 그렇지 못했다. 늘 병을 달고 살다 보니 어느 날 항아리손님이 찾아왔다. 어린 이정 선생에게는 살아서는 맛보지 못할 아픔 중의 하나였다. 오죽했으면 백일 동안 기침하는 병이라 백일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변변한 약 한 재 짓지 못하는 가정형편, 오직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을 때 아버지가 보다못해 나섰다. 어디선가 항아리손님에게는 도라지가 특효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당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부합하자 낫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것이 발걸음을 재촉한 것이다.

아버지는 지천으로 깔린 산에 가서 도라지를 찾았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게 낫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사실 한 가지. 그냥 도라지가 아니라 백도라지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뒤늦게 알았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쌩을 허공에 퍼붓더라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소리였다. 다시 나섰다. 그런데 어디 산에서 백도라지를 찾기가 쉬운 일인가? 곳곳이 보라색이요, 혹시나 백도라지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며 산속을 헤매며 하루 나가야 겨우 몇 뿌리씩만을 캐왔다.

이것을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산 아래 뽕나무껍질, 텁밭의 생강, 뒤悒의 모과 등을 넣어 달여서 먹였다. 그게 우연인지 정성인지 백일이 지나 자연스럽게 나았는지는 몰라도 이정 선생에게 찾아온 항아리손님은 찾아올 때처럼 빠르게 가버렸다.

그 뒤부터 아버지의 백도라지 효능은 민간요법의 효능에 상관없이 신념에 가까웠다. 토종을 지키는 농부들의 이유는 가끔 맛의 습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저 길들어진 습관이 고정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끔은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100살이 넘도록 지혈제로는 달개비 잎을 쓴다. 여물을 썰다가 작두에 손가락이 반쯤 잘렸을 때도 달개비를 으깨서 뭉텅 얹어 놓고 형겼으로 둘둘 말면 끝이다. 그게 신기한 것이 사나흘 지나면 생살이 돋기 시작하면서 아문다는 것이다. 언젠가 우겨서 억지로 병원 가서 꿰맸더니 오랫동안 손을 쓰지 못한다고 원망을 듣기까지 했으니 어머니의 지혈에 대한 신념은 달개비뿐이었다.

당연히 이정 선생의 부친에게는 항아리손님에는 반드시 백도라지라야 했다.

百日咳에 왜 白도라지만이 특효가 되는지는 이정 선생도 모른다. 어쩌면 百와 白의 발음에서 오는 징크스나 루틴이 아버지의 삶 속에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항아리손님에 신다 만 삶은 미투리가 좋다고 먹은 것이나, 죽순이 맛있다니 대나무 평상을 삶아 먹은 것이나 신념에서 굳어지길 매한가지다. 이분에게는 항아리손님에는 백도라

지, 오직 백도라지가 명약이었을 뿐이었다. 그 신념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켜졌다.

부친께서는 그 후부터는 일일이 산에 가지 않기 위해 백도라지를 직접 재배하기로 맘을 먹었다. 그런데 문제는 백도라지 꽃을 찾아 표시했다가 그것만 씨를 받아 뿌렸는데, 이듬해 보니 온통 밭에는 보라색 꽃이 만발이었다. 겨우 건진 것은 반쯤. 그는 보라색 꽃을 모두 꺾어 내고 흰 꽃만 남겨 씨를 받아 다시 이듬해 씨를 뿌렸다. 신기한 것은 그래도 이듬해 보라색 꽃이 핀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그 후 한참을 도라지밭에서 보라색 꽃을 꺾어 내며 백도라지 씨를 가려냈다. 그렇게 몇 년, 드디어 꿈의 백도라지 밭이 되었다.

그 뒤 항아리손님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이정 선생은 대처로 공부하러 떠났다. 그러나 부친의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심은 백도라지였다. 부친 신념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 아들이 대처로 나가자 천식과 기침이 잦았던 어머니를 위해 백도라지를 심었다. 그렇게 몇 년을 간호하다가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곧바로 뒤따라 돌아가신 아버지. 그가 남긴 것은 오직 백도라지 씨뿐이었다.

이야기가 다 끝나자 이정 선생이 오래된 그루터기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생각이 나는지 구둣발로 그루터기를 툭툭 두어 번 치더니 ‘이젠 가시죠.’ 한다.

유품이라는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됐다.

이정 선생은 비록 농사는 짓지 않지만, 지금도 마을 텃밭을 얻어 백도라지 씨를 심고, 8월이 되면 아버지처럼 어김없이 보라색 꽃봉오리를 속아내어 백도라지 씨를 받는다.

이정 선생은 도라지를 별이라 생각한다. 그가 말하는 아버지가 바로 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도라지를 자세히 보면 별이 세 개다. 꽃봉오리도 별이요, 꽃도 또한 별이다. 그리고 나중에 씨앗을 받아 파란 도화지에 흘뿌려 놓으면 곧 은하수가 된다. 이정 선생에게는 별만큼 그리운 도라지다. 도라지는 꽃이 일품이라 도라지꽃이 필 무렵이면 이정 선생에게는 그리움이 함께 **피어**올라오는 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지 도라지만 가까이 있을 뿐 그의 그리움은 별만큼 멀리 있다.

그래도 도라지가 곁에 있으니 어디냐는 이정 선생,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백도라지를 심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보라색 꽃을 속아내며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